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div>경 재외동포청 추</div> <div>인천 설치 확정!</div>	
		배포일자	2023년 5월 12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 당 자	• 안전기획팀장 김수진 ☎440-5731 • 담당자 김은정 ☎440-573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호텔 8곳 확보

- 학교 등 대규모 임시주거시설 한계 보완위해 민간숙박시설 6개소 추가 확보 -
- 호텔측, 재난 이재민에 독립 임시주거시설 제공위해 긴급구호 협력키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군·구와 협의해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우기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와 군·구가 확보해 놓은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총 493개소, 17여 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천여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곳이다 보니, 그 동안 이

재민과 일시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위해 민간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서는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숙박시설 사용시 7일간 지원이 원칙이며,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동의해주신 민간숙박시설 대표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재난의 피해 및 이재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고

## 신규 임시주거시설 지정 동의 숙박시설

연번	구분	업소명	소재지	비고
1	강화군	호텔 에버리치	강화군 강화읍 화성길50번길 43	신규
2	중구	루비관광호텔	중구 월미로248번길1	
3	미추홀구	데이앤나잇 호텔	미추홀구 석바위로 725	
4	연수구	인천 스테이 호텔	연수구 능허대로 181	
5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남동구 소래역로 44	
6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계양문화로 53번길6	
7	동구	IMT호텔	동구 샛골로 135	기지정
8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	부평구 광장로 10	